

# 황금 평야·푸른 초원...때묻지 않은 섬



도초도 중심부에 드넓게 펼쳐진 고랑평야. 섬이지만 920ha에 이르는 논이 있다. 초지가 많아 1900여두의 가축도 자라고 있다. 농축산물에, 민물고기며 해산물이 풍족한 곳이 도초도다.

## ‘블루오션’ 다도해 <38>

###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신안편-도초도

서남문대교로 비금도와 도초도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됐지만 여전히 이들 섬 주민 간에는 알듯 모를 듯 경쟁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비금에는 부자가 많고, 도초에는 인물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박우량 전 군수, 고길호 현 군수 등이 모두 도초 출신이다. 도초도에는 유흥시설이 없어 서남문대교가 생기자 비금도에서 ‘월정 술자리’를 가진 도초도 ‘아저씨’들의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비금도가 지난 2014년 도초도로 통합되면서 도초도의 중학교를 가져오려는 비금도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 도초도에는 모래사장이 잘 보존된 해변이 많아 비금도 주민들이 자주 놀러오지만, 비금도에 진출한 도초도 주민은 거의 없다는 것이 도초도 주민들의 말이다. 또 하나, 비금도 주민들은 음식이 더 맛있다고 다리를 건너 도초도 식당을 찾는다.

**벼 920ha·가축 1900여두 사육...사철 해산물 풍부  
자원 좋고 인프라 양호...홍보 안돼 여름철 특수 그쳐**



도초도의 용당산 산허리에 자리한 만반사.

도초도는 비금도보다 조금 큰 55.28km<sup>2</sup>의 면적에 유인도 4곳, 무인도 47곳으로 구성된다. 부속도서인 우이도 131세대 219명을 포함해 1567세대 3080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 때 1만2000여명의 인구에서 4분의 1로 급감했다. 섬은 중심부는 고랑평야로 대표되는 경작지가, 섬 외곽은 임야로, 용당산~금성산~큰산~비아산~천금산~오봉산 등이 감싸고 있다. 그 바깥쪽에는 도남염전, 매실염전, 대광염전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도초(都草)라는 명칭은 과거 신라 시대 당나라와 교류하는데 기항지였던 이 섬의 지형이 당나라 수도와 같고, 지역마다 초목이 무성해 당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전해졌다고 한다.

도초도는 비금면과 비슷하게 천일염(면적 300ha 생산액 65억원), 시금치(360ha 60억원)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벼(920ha 70억원)가 포함된다. 벼(920ha 70억원)가 포함된다. 아마도 섬 중심부에 광범위하게 자리한 평야 덕분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초지도 곳곳에 분포돼 있어 한우 1200두, 돼지 10두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도 상당하다. 이외에 가을부터 초봄까지 나오는 간제미, 4~5월 사이에 나오는 감오징어와 꽃게와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장어, 전복 등도 맛있다.

도초도의 부속도서인 우이도는 모래언덕(사구)로 유명하다. 도초도 안내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도초면사무소 무기계약직 김송현(41)씨가 맡았다. 도초도에는 마을 곳곳에 자리한 석장승, 용당산(205.9m) 중허리에 자리한 만년사, 해변의 바위들, 비금도의 하트해변과 너무도 닮은 가느스름 해수욕장 등이 있다.

비금도와 마찬가지로 도초도 역시 한창 때 1만2000명에 달했던 인구는 꾸준히 줄면서 4곳이었던 초등학교 역시 1곳으로 줄었다. 게다가 요즘 교통편이 나아지면서 주말이면 면사무소, 농협 등 공공기관 근무자, 40~50대 중장년층 등이 몰오르며 나가면서 주말이면 한적할 정도라고 한다.

인근 사자바위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1950년 세운 공항리의 석장승은 장기간 어딘가에 방치돼 있다가 최근에야 그 가치를



공항리 석장승(위)과 고랑리 석장승. 역운을 막기 위한 장승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다.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에 다시 건립됐다. 과거의 것이 이제야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장승을 지나 시목해수욕장에 들러니 비금도 한 어린이집 주최 체육행사가 진행중이었다. 잔디와 모래사장이 잘 형성돼 있고 방풍림이 해변을 감싸고 있어 행사를 치르기에 적격이라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도초도는 자원도 좋고 식당, 펜션 등 어느 정도 시설도 갖췄으나 교통 불편이나 홍보 미흡 등으로 여름 20일만 외지인들이 찾은 뿐이다. 그만큼 자원의 보존 상태는 양호했다.

겨울에 도초도를 찾는 외지인 대부분은 불청객들이다. 고랑평야를 비롯해 경작지 곳곳을 흐르는 수로와 하천에는 외래종이 없고 깨끗하게 관리되면서 물의 민물낙시꾼들이 찾아와 참붕어, 장어, 잉어 등을 낚아들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신안군은 지난 2013년 ‘낙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고 단속해 나설 정도다.

만년사 인근 제1상수원에서 바라본 고랑평야에서는 한창 비배기중인 트레터가 황금 들녘 곳곳에 길고 곧은 줄을 내고 있었다. 보통의 섬에서는 볼 수 있는 경관이다. 고랑리에도 석장승이 있는 과거 신당과 함께 있었던 나무장승이었는데, 1938년 돌로 바꿔 건립했다고 한다. 비금도의 내촌마을과 같이 돌담으로도 유명하다.

### 섬 사람들 김송현씨 “신안 소금 애용해주세요”

섬 안내를 맡은 김송현(41)씨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농협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건설노동자로 지내다 다시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라중공업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고향만한 곳이 없었다. 8년 전 다시 도초로 돌아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안 안좌도 출신인 아내를 목포에서 만나 13살, 6살난 딸을 낳아 기르는 재미에

도초도에도 비금도와 마찬가지로 모습의 하트해변이 있다. 하트의 ‘각’이 좀 다를 뿐 ‘가느스름 해수욕장’의 풍경은 비금도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다. 용당산 허리에 있는 만년사도 한 번 둘러볼만한데, 1948년 건립된 비교적 큰 사찰이지만 지금은 비구니 1명만이 거처하고 있다. 단청이나 기둥이 색이 바래거나 벗겨진 곳도 보일 만큼 절 곳곳은 오랜 흔적을 갖고 있었다.

도초도의 해변에 자리한 바위들도 유명한 곳이 많다. 다만 이들 바위를 제대로 보려면 사람 머리 위까지 자란 잡초와 굵디 굵은 거미줄을 헤쳐야 한다. 그만큼 정비가 안 됐다. 동행한 김씨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측의 반대로 인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투덜댔다. 어렵사리 길을 헤치고 가니 예전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단속을 피해 아편을 피웠다는 아편바위,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면 칠덕(성공, 건강, 부자, 친구, 처, 부모, 자식)의 운을 받을 수 있다는 칠덕바위 등을 볼 수 있었다.

도초도의 북쪽에 자리한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을 받아 택배로만 받아볼 수 있는, 30kg에 10만 원짜리도 있다. 그만큼 자원의 혜택이 여전히 바다와 산, 마을 곳곳에 미치고 있는 곳이 도초도다.

/윤희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요즘 폭 빠져 있다. 주말에는 부모님의 눈농사를 돕고 있다. 유일한 취미는 국공으로, 가끔 대회 개최에 나가 실력을 겨루는 즐거움도 크다. 그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편한 섬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최근 소금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김장할 때 외국인 소금 좀 안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이태리소파 초특가전

100% MADE IN ITALY



~~7,100,000~~  
▶ 3,950,000 올면피



~~5,980,000~~  
▶ 2,980,000 올면피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 1899-0240
홍스페이스